

[현장 & 현장 사람들 4*: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흥성 센터장]

구미의 오색빛깔 매듭 묶기

강민욱 · 강성진 · 조경숙**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는 길은 봄과 여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따뜻한 날씨였다. 2014년 5월 12일

오후 1시, 대구에서 출발하여 2시 즈음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구미에 도착하여 어리둥절한 우리를 센터까지 이끌어 준 것은 다름 아닌 고소한 빵 냄새였다. 기분 좋은 고소함을 따라 찾아 간 곳에는 ‘아름다운 베이커리’와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이곳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사진들이 센터 입구까지 길을 안내 해 주고 있었다. 이중언어대회, 가족캠프, 국회의사당 퍼레이드, 원예치료(가족교육) 등 많은 사진들 속 주인공들의 모습에는 활기차고 즐거움이 느껴졌다.

2층에는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이 보였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내부는 활기찼다. 아담한 공간 안에서 많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는 우리와는 다른, 하지만 우리와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 연구소는 학술적인 연구 활동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현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시도로 지역사회 단체 탐방 코너를 마련하였다. 최대한 개방적인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장에 계신 활동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자 한다.

** 대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학, minuk2002@naver.com

대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학, gold1368@hanmail.net

대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학, uchpra3@naver.com

같은 사람들이 더불어 생활하고 있었다. 바쁜 직원들 사이에서 장흥성 센터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센터장님과 인사를 나눈 후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매듭: 구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작

장: 저는 95년에 구미 진량에 창립멤버로 들어가서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의 삶, 지역에 맞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원래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90년대 지나서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때였죠. 제가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취지에 같이 했었죠. 95년에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관련 정책이나 실천 대안을 내야 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아동이나 여성을 좀 해보고 싶었죠. 그 때는 학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관련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2004년에 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을 직접 하게 됐죠.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옛 명칭인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이후 경북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거죠.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

장: 처음 구미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였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구미는 공단도시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80년 후반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불쌍하다, 안됐다'는 측면에서 가톨릭센터에서 하는 미사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결혼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과 북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흥성 센터장

한이탈주민들도 지원하다 보니, 한국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하다 결혼이주 여성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90년 초·중반부터 구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황은 열악했어요. 남편들한테 폭력도 많이 당했고,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시집오는 경우도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처음 지원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지만, 그 당시만 해도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남편들이 왜 공짜로 뭘 가르쳐주고 뭘 해주냐, '혹시 다단계가 아닌가', '사이비종교가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내가 국제결혼했는데 지원해주는 거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안 주면 오히려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사이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진짜 많이 변한 거죠.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독립성

장: 먼저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75명의 구미 시민들과 Opinion leader들이 돈을 내서 출자기업을 만들었거든요. 이 수익금으로 다문화센터랑 저희가 하고 있는 자부담과 후원금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나와요. 빵 공장에서 수입을 6천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 정도는 되어야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미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독립성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건비만 계산해도 빠듯한 거죠. 외부 사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후원금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더구나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사업은 사후 처방문인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는 문제가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커져야지 그 다음 대책을 세우잖아요. 특히 사회복지 쪽은 문제해결중심의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예방적 정책들이 더 필요해요. 게다가 현장은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 정부의

손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먼저 사업비를 써보고 그 사업에서 효과성을 보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미가 시험적으로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사회적 기업도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경영이 되지 않으니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시민 출자 기업이라 해서 수동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즉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매듭: 다문화인식의 변화

장: 다문화센터에 오면 옛날에는 한국말 가르쳐줘가지고 남편들이나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고 한국어 가르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무지(無知)한 상황 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도 가고 하잖아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거주한지가 20년 이상 됐어요. 초기에 한국의 시어머니나 남편들은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억압을 많이 했죠. 결혼이주여성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내 자식의 엄마로써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초기에는 혼자 왔기 때문에 쉽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녀가 생겼잖아요. 자녀는 보통 엄마 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자연스레 이주여성에게 힘이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니까 엄마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들도 교육을 받으려 많이 와요. 그리고 요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처음 이주여성 며느리를 들이게 될 때, 우리 센터에 같이 와요.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가 빨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죠. 차편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며느리를 데리고 오시는 시부모님도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국제결혼을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내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이랑 결혼시킨다고 부모역할을 잘못했다

는 부끄러움에 자존감이 상해서 쉽게 바깥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언론이나 매스컴 덕택에 다문화 인식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국의 30만에 가까운 결혼이주여성들이 있으니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서부터는 시부모님들도 많이 오고, 남편들도 많이 와서 상담을 해요. 과거에 비해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한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전체 외국인과 똑같은 수준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저로써는 그렇게라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고 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 매듭: 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장: 그렇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 대상이 딱 묶여져 있어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 즉, 자녀죠. 그리고 입양한 사람. 일단 국적을 취득한 사람하고 혈연관계 가족관계로 이루어진 사람, 입양이나 혈연관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1. 함께하며 커져간 보람

장: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에서 20살 이상까지 다 자랐잖아요. 고령화,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 20살 이상의 성인이 한국에 수십만이 들어오는 것은 인적 자원 활용개발 측면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단순히 며느리, 아내 혹은 아이 엄마로만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봐요. 저는 다문화성이 강한 이 여성들을 어떻게 인적자원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무도

안 할 때 우리는 <결혼이주여성 대학 보내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목표는 경북지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중 30%만 대학에 보내서 대학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주여성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불쌍하거나 한국사회를 잘 모르는 무지(無知)한 결혼이주 여성이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적 역량을 겸비하여 강화된 여성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각자의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했어요. 대구대학교에도 우리가 지원한 여성이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제안을 해서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17개 대학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죠. 이제는 경상북도와 지자체 같은 곳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대학에 들어 갈 때 격려금 100만원을 지원해요. 우리 센터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만 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분들의 경우, 등록금 낼 때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50만원 밖에 안 내요. 심지어는 6천원만 내고 학교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결혼이주여성이 B학점 이상을 받은 것에 소득수준으로 나누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장학금과 경제적 구제가 연계되니 6천원이라는 금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제가 이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낀 것은요,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학생들 속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전액장학금을 받고요. 대학보내기 1호생이 우리 센터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계명대에 편입해서 팔팔한 한국 20대들과 경쟁해 만년 수석을 했어요. 졸업할 때 평균 4.48! 지금 이제 41살인가? 놀랍지 않아요?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죠.

20살에 잘 살아보려고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 오겠다는 결심을 내비친 친구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예요. 타지에 선뜻 오기가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들을 집안에 '사장'시키는 것보다도 사회에 인적자원으로써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도 결국에는 잘 살아보겠다는 거지 가난하고, 직업도 변변찮은 데다, 나이까지 많은

남자 밑에 가서 아이 낳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한국 온 게 아니란 거죠. 하지만 막상 와보니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를 겪게 되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학에 보낼 때 누가 와서 한국남자 말 잘 안 듣고, 자기 능력이 커져서 이혼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하더군요. 그 질문에 이혼은 각자의 사정이지만 자기 계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권적 측면에서 억압당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강하게 대답 해줬어요.

2013년 경북 전체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 11,000명이 결혼이주 해 와있다고 해요. 그 중 500명이 대학을 다니거나 가고 있더라고요. 이걸 5%의 숫자예요.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지나 30%를 만들면 그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때문에 이를 더 유치하고자 대학에 간 여성들과 작년년부터 <다문화 인재세계화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다문화 인재세계화에 국가적 도움을 주고자 해서요. 작년 10월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대학을 졸업했거나 통번역이 가능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 15명을 데리고 우리 의료진과 함께 베트남에 의료봉사와 지역봉사를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의료봉사 갈 때와 비교해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인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의료진들이 가면, 처음 만나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통원 한 번 안 해본 현지인들에게 청진기 한 번 대주고, 약 한 2-3일 정도 약 처방을 해주면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이주여성들은 가서 문진이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있던 지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한국 의사한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점 중심으로 진료를 한 번 해 보세요'라고 알려 주거나 의사로부터 약 처방을 받을 때, '이 약은 용법이 어떻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효율성이 높으니까 하루에 800명이 넘는 환자가 진료소로 찾아왔어요.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에서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똑똑해도 한국 사람과 비교당했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국에 오니까 한국인이 '을'이 되는 거죠. 한국말만 할 줄 아니까, 현지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때문에 자신이 의미 있는 인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존

감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연말에 필리핀에 태풍 있었잖아요. 그 때 또 필리핀에 이주여성 15명하고 대학봉사단, 대학생들하고 갔는데, 대학생들 봉사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거기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멍하게 앉아서 가서 뭐할까?'하며 우왕좌왕하는 반면에 우리 이주여성들은 현지어를 하고 중간 역할을 하니까 대학생 중 해외봉사 경험 있는 친구들도 '이게 훨씬 좋다,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일반 대학생들은 뭘 했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매일 땅만 팠대요. 언어가 안 되니까. 땅 파고 노동으로 하는 페인트칠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여성들은 언어가 되니까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곳 어른들은 물건을 받는데 익숙해요. 물질적으로 준 것은 잠시의 고마움만을 남기지만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큰 의미로 남아요.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을 수 있는 거죠. 언어 경쟁력이 정말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6년 전부터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대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한지 5년이 되니까 대상을 받는 아이도 나오는데 그 아이는 지금 외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언어 영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다문화 가족들은 '장가를 못간 사람', '못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바깥으로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주여성도 참 괜찮다, 이게 참 자원이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중언어 대회를 전국대회로 규모를 키우게 되었어요.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 센터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요. 효율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남일보가 대회를 주관해요.

우리 센터는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하고 싶을 걸 많이 하려 해요. 무엇보다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 이주여성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구미는 공단이에요.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 당사자를 위해서 일요일 프로그램도 하죠. 그래서 실무자는 힘들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필요

할 때 있어줘야 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역할이니까요. 한국에서 교육을 안 받은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적, 정치적, 역사 같은 문제를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엄마들이 자기들도 한국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다 말하더군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요. 김유신 장군이 누군지, 첨성대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 때부터 역사 교육을 하는데 책으로만 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보고, 첨성대도 모형으로 만들어보았죠. 또 요즘에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좋잖아요? <드라마로 하는 역사 공부> 같은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지난 일요일에 30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교육 구성은 3주 동안 관련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한 주는 공부한 것과 관련된 문화 체험을 해요. 부여도 가보고 말이에요.

장: 이제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중심의 교육도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해졌어요. 한국어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만 가지고는 이주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못 맞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주여성과 개별적으로 매우 친밀하니까, 또 항상 상근하면서 체험을 했으니까 이 때 즈음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요. 하지만 중앙에서 필요한 것을 받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용역 주고 절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해보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여기 저희 빵 팔아서 사용하고요.

3. 아름다운 베이커리

장: 처음에는 아름다운 베이커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이주여성들도 많았고, 한부모도 많았어요. 근데 빵이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거든요. 매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장에 납품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성들 힘으로는 힘들어서 남자 중심 채용으로 바뀌었어요. 돈 버는 것은 돈 버는 쪽으로 하고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특히 노동 강도가 센 일을 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동남아시아 경우는요, 힘들면 안 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한국 사람들은 노동 강도가 센 게 당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세니까요. 그런데 더운 나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시간만 보내면 되는 그런 문화적 특성들이 있어요. 문화적 특징들이. 그걸 모르고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거의 다 망하잖아요. 책임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유행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파트타임으로나 강도가 약한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완전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우리 센터 안에서도 이주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국인들 한국 사람들이 센터 실무자로 있잖아요. 이게 업무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걸 개인의 능력으로만 보고 뭐라고 하기에는 그 동안의 교육수준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센터에서도 업무 능력에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이랑은 더 차이가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건 앞으로의 숙제예요. 한국 노동 시장에 적합한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기도 해요.

네 번째 매듭: 다문화 연구의 딜레마와 조화

장: 사실 다문화가 유행처럼 되면서 대학마다 연구소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 분들은 똑같은 외국 이론들을 재생복사 하는데 급급하고 연구원들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고,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니 현장과 거리도 있고요. 하지만 사회복지실천 학문이잖아요. 실천 가능한 연구물들이 나오면 좋은데 문헌 연구에 그치는 게 안타깝워요. 그리고 핵심에 못 들어오고 주변 문제만 다루는 거 같아요. 정부가 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연구물이 나왔을 때 실천에서 활용 가능하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활용 가능하지 않은 연구물이 60% 이상인 거예요. 누구나 아는 이론에 하나 더 붙여서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요.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저는 이론이 약하니 제안이 좀 거칠어요. 하지만 이러한 제안 같은 경

우 훨씬 실천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답답해요. 학계나 연구소에서 현장이랑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석사들의 경우 석사 학위를 따고 나서 2년에서 3년 정도는 현장 경험을 하는 것이 나는 더 좋은 논문과 활용 가능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얼마나 현장밀착형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정책을 전공하더라도 현장을 알아야 하는데, 하물며 실천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문헌연구의 경우, 한국의 다문화는 외국의 다문화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배경도 다르고 유입 경로도 다르고 계층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이론이나 북미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한국형으로 적용하니까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에서 국제결혼이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도 봐야 되고, 결혼이주여성보다 네 배가 많은 노동시장도 봐야 해요. 유학생도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즈음은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구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이론을 공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론하시는 분들은 현장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러한 벽을 허물지 않으면 연구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정부가 돈을 주고 용역 하는 연구소의 결과물이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 훨씬 현장감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서울이나 여정원, 대경원, 경기개발원에서 나오는 연구물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어요. 물론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문헌연구고 이 쪽은 실용 영역이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같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구논문을 만드는데 용역에서 나온 연구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즈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현장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얼마만큼 사회 참여를 하는가에 따라 현실에 맞는 논문이나 연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구소는 좀 더 개방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필요해요. 세미나할 때 현장 사람 한 번 불러서 듣고 끝나는 식의 교류는 아닌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1~2년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현장하고 계속 밀착해서 직접 보고, 결과도 보고, 또 제안할 수 있으면 제안도 하고요. 현장은 현장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 하

더라도 연구기들의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이 절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잘 맞물리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한국의 좌식문화

장: 센터를 온돌식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상담실도 그렇고 언어발달실도 전부 온돌식 바닥인데요, 언제든지 맨발로 뒹굴 수 있는 집 같은 구조를 생각했어요.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이 한국 문화잖아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문화들이 책상에 의자를 놓고 앉지 바닥에 앉는 문화가 아니라서 한국 문화를 생활에서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색깔 같은 것도 가능한 한 밝고 화사하게 했어요. 20대 여성들이 주로 오니까요. 공간도 일부러 좀 좁게 구성을 한 것이 너무 큰 공간에서는 이주민들이 압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너도나도 다 맨발로 다니면서 말이예요.



차와 예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

또 저희 센터에서는 일회용을 못 쓰도록 했어요. 생활 패턴도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일회용 물품을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자 컵으로 사용하고, 사용하고 나서는 다 자기가 스스로 씻도록 해요. 전 이것도 교육이라고 봐요. 우리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요. 교육 따로, 실천 따로 이걸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자기 속의 이야기를 잘 해요. 책상에 앉으면 방어기제가 작동하지만 이런 바닥에 앉아서 차 한잔 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잘 해요.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할 때는 여기 불 끄고 잠도 자라하고 그러죠. 2층 전체를 온돌로 깔아 놔어요. 우리 다문화 도서관에도 가면 애들이 신발 벗고 뒹굴 수 있도록 구성해

났어요. 어찌되었든 이주민들과는 접촉하는 빈도가 많아야 되요. 그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평가 1등이란 타이틀보다는 존재 이유가 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철학이 가장 중요해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 센터에 공무원 중앙연수원에서 연수를 위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해주고 공무원의 지시만을 받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흔히 이야기 할 때, 해야 되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정부보조금 받으면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 80%가 넘으면 그 센터는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전체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개별의 자율성에 얼마나 침해할 할지 안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해야 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주민들이 서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 이주민 자기 자신이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 매듭: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모두'

장: 지금 현재는 구미시하고 공동 모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린이 한국도서관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다 외국도서관이에요. 대략 13개 언어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구매할 때



어린이 도서관 '모두' 전경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수요조사를 하고요. 자국 나라 언어로 된 운전면허 책, 자국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육아 책, 자국나라에 있는 사진첩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거를 자기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해서, 그 수요조사들을 통해 저희들이 직접 통관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 책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인터넷 '아마존' 사이트 통해서 살 수 있는 책은 중국, 일본도서 정도고, 나머지 도서들은 직접 현지에서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들한테 필요 목록을 요청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오기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우리나라 아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의 경우, 애들이랑 같이 엄마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일요일까지 문을 열었는데, 올해부터는 토요일까지만 열고 일요일 하루 휴무를 해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제일 프로그램이 많은 날은 토요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어요. 요즘은 애들도 많이 바빠서 오히려 평일이 조용해요. 그렇다고 평일에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평일 저녁에 아동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1. 도서관 개관 시간

장: 6시까지 해요. 작년까지는 일요일까지 예외 없이 8시까지 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개관 시간을 좀 줄였어요.

2. 도서관 프로그램

장: 애들한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구요. 저희 도서관을 이용해서 결혼이주여성들 자조모임도 많이 해요. 베트남어나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함께 지지를 해주죠. 일반 시민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도서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지 않고 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로 둔 것은 이 공간이 일반 시민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길 위해서였어요. 도서관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있었다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을 주민들과 결혼이주여성

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니까 토요일에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 아이들이 책을 읽음을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는 Korean culture 프로그램,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책으로 보는 한국사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결혼이주여성들이 애들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한국 역사거든요. 자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해요. 그건 토요일 오전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로 방문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강사가 되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죠. 호응이 좋아요. 또 하우스 콘서트라고, 책장 밑에 보시면 바퀴가 달려있어요. 책장을 다 밀어서 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공간에서 함께 공연을 하죠. 공연을 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뽁뽁하게 150명씩 앉아서 해요. 게다가 음향장치까지 비치하고 있어서 저녁에 10시쯤 영화상영 하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애들이랑 방학 때, 도서관에서 하룻밤이라고 도서관에서 애들이 책 읽고 귀신이야기 하면서 하룻밤 함께 자는 프로그램도 있죠. 이제 도서는 신간도서 말고는 사실 거의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기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집에서 보던 동화책들도 애가 크면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나눠주는 것도 하고 있어요.

매듭 묶기: 이야기를 마치며

언제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구미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하루가 흘러갔다. 센터장님의 뚜렷한 철학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이 곳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다문화의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란 센터장님의 철학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와 닿았다. 또한 쉬는 날도 없이 언제든지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있어주기 위해 휴일을 희생한다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발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다문화의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닐까.

표 1.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현황

주소 및 연락처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5길 6-15 (형곡동 314-3번지) • 전화: 054-464-0545 • FAX: 054-458-0575 • Email: agm0575@hanmail.net • 인터넷 홈페이지: agm0575@hanmail.net
설립목적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추구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이러한 변화로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상담 활동 및 양성평등 교육을 통하여 가족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이 형성되도록 활동하고, 세계화의 추세로 변화되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사회를 지향하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체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01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 2010. 02 설날맞이 행사 “베트남과 한국의 설이 글로벌 파트너로 만나다” • 2010. 03 여성가족부 우수단체 표창 • 2010. 03 찾아가는 공부방 개소(교아, 양포 운영중) • 2010. 03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 2010. 04 경상북도 구미시의 2010년 다문화가족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결혼이주 여성 성폭력·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양성교육 • 2010. 05 다문화어울림합창단 우수상 수상(여성가족부) • 2010. 07 다문화어린이도서관 개관 • 2010. 12 2010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은상 수상 • 2011. 06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도움상(단체) 본상 수상 • 2012. 02 여성가족부장관 최우수센터수상 • 2012. 08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 개최 • 2012. 09 베트남 하노이대학교, 탕롱대학교 문화와 개발 연구소 일행 초청 강연 개최 • 2012. 09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2012. 10 불산피해지역 음식나누기 행사 개최 • 2013. 07 시정 유공 민간인 표창 방문교육지도사 2명 수상 • 2013. 09 한가위 명절 음식 나누기 개최 • 2013. 10 다문화 어울림 음식문화축제 • 2013 제4회 구미국가산업단지 날 행복산단 기업사랑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베트남 전통춤) • 2013. 12 베트남 부대사 초청 강연 개최

<p>단체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장흔성 • 총괄팀장: 이명숙 • 방문사업담당: 김민서 • 센터사업담당: 김연옥, 이영민 • 한국어사업담당: 백은하 • 언어발달지원: 이예슬, 송유경 • 통번역지원: 후수니아티, 김영해, 부이티응옥화 • 다문화가족사례관리: 김은정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top service! 상담 및 지원연계 • 출신국별 자조모임 육성 • 다문화가족 모두가 신명나게 • 우리가족 능력 업그레이드 • 다문화인식개선사업(다문화강사파견, 심포지엄, 캠페인, 다문화축제) • 교육문화사업 •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 가족 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 • 찾아가는 공부방(교아, 양포) • 아시아음식문화축제 •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 다문화 어울림 예술단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통번역서비스사업 •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 다문화 상담소 • 다보리 다문화 북카페 • 5거점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상북도다문화가족광역센터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진]



2013 다문화 어울림 음식 문화축제



한글공부방 개소



달팽이의 꿈! 차량 전달식



설음식 나눔행사



베트남 의료 및 보육봉사



'글로벌 새마을지도자 교육' 수료식